

철학 토론문

두안우이원(段偉文) 선생님의 “메타버스 시대의 가치 기준점 탐색, 과학기술윤리와 동양 지혜의 관점을 바탕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형주 / 중앙대학교

메타버스는 많은 얼굴, 손과 발을 갖고 있다. 즉자적으로 메타버스는 미래사회의 먹거리이다. 산업자본의 놀이터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제페토(ZEPETO)’, ‘로블록스(Roblox)’가 이끌고 있는 초등학교생 메타버스 군단은 말할 것도 없이, 유명 가수의 메타버스 공연 예매율은 오프라인 공연 예매율을 상회한다. 나아가 메타버스는 삶의 형식(modus vivendi)이다. 새로운 삶의 형식이라고 말하기엔, 이 말은 이미 식상하다. 메타버스 개념은 논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외연이 넓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액정 속 디지털 숫자들 역시 메타버스 속 숫자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는 그 말의 뜻이 나타내듯, 상식적 실재론의 관점을 취하면 도래하지 않은, 아니 도래할 수 없는 세계(우주)이다. 메타(meta-)라는 접두어가 붙는 한, 메타버스는 항상 변증법의 왼편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종합하자면 메타버스는 삶의 욕망이 추동한 현실 속 비현실 세계이다. 그렇기에 더 이상 가상세계는 아니다.

이 글은 메타버스가 실상은 프로그램에 따른, 즉 자연계에 기반 한 과학 기술이라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과 그것이 양산해내는 여러 가지 폭발적인 영향력에 다른 결과 사이의 간극에 주목한다. 그 간극을 메우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평자가 파악하기로는, 이 글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 글의 목표 중의 목표는 그 방식의 가치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동양의 지혜를 빌린다. 형이상학과 접두어를 공유하고, 칸트로 이어지는 독일 강단철학에서 수행되던 형이상학의 주요 주제인 ‘우주’라는 지극히 서양철학적 개념을 합성하여 단장을 시킨 이 용어의 현실적 움직임에 동양의 지혜로 대응하는 이 글의 시도와 내용은 매우 참신하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를 바라보는 현실 인식, 글을 엮고 있는 여러 지점들, 그리고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성있는 윤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행위 주체들이 모두 이 문제에 동참해야한다는 주장에 평자는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럼에도 평자의 부족한 식견과 이해력은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내었다. 이 질문들이 공유될 수 있길 바란다.

1. 논자가 제시하는 가치기준점은 전통적인 이분법적 사고에 입각한 인간중심주의라고 판단된다. 평자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가상과 현실의 혼동 및 경계의 사라짐”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메타버스가 “생명과 지능의 진화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는 것, “인간 중심 및 현실 사회 보호의 원칙” 등의 표현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메타버스는 ‘삶의 욕망이 추동한 현실 속 비현실 세계이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사회를 자본주의 욕망이 만들어 낸 가상사회이기에 부정하려 들지 않듯, 메타버스는 비현실 사회이지만 그렇다고 초현실 사회나 가상 사회는 이미 아니다. 이러한 한, 가치기준점을 조금이라도 유연하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2. 동양의 지혜를 다섯 개로 축약하였는데, 그 기준이 궁금하다. 다섯 개는 모두 독립적으로 내재적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외에도 더 많은 가치들도 있다. 다섯 개를 선정한 기준이 이 글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데 그 기준이 궁금하다. 그리고 이 개념들 간의 정합성도 궁금하다. 이를테면 진성(盡性)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 현실화의 논리, 칸트의 자기 개발의 의무, 나아가 기술 발전의 당위성 논리가 연상되는 반면, 적도(適度)는 존재론적 위계에 따른 기술 개발 제한의 윤리가 떠오른다. 통상 이 둘은 분리되어 대립되는 것으로 논의되는데, 이 둘이 어떤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3. 이 다섯 개의 지혜와 이에 뒤따라 기술된 거버너스 원칙과의 추론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